

당뇨병주간에 즈음하여



은 영 길

전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 교육위원장

지난 5월, 일본당뇨병학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당뇨병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당뇨병 발병 환자 수를 69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후생성의 전국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더욱 놀란 것은 당뇨병 예비 환자 수를 합하면 1370만명이고 20세 이상에서는 7명 가운데 1명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당뇨병환자 수는 이 방면의 전문가들에 의해 25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우리나라 당뇨병환자의 유병률 조사를 위해 전국적인 통계가 시도된 적도 없지만, 우리나라 통계에 대해 큰 믿음이 가질 수 없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여름 수해 피해 상황의 집계도 그러했고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 파악도 정확하지 못하다는 보도까지 접하다 보니 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

당뇨병은 다른 병과 달리 무서운 합병증을 동반하는 병이므로 무엇보다도 합병증의 예방이 중요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당뇨병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당뇨병환자에게 지급되는 재정조사까지 실시하여 발표되고 있건만 우리는 언제 그런 관심이라도 가져볼까? 당뇨병에 대한 국가적 계몽을 시작한지 5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모두가 무관심하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이지 않는가? 당뇨병환자의 수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당뇨병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소홀하다.

금번 당뇨병주간이 정부는 물론 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당뇨협회, 대한당뇨병학회 그리고 국민까지 당뇨병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로 발전되길 기원한다. **DAK**